

공학계열 출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

조민경¹ · 장유진^{2*}

¹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²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에서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상담 분야 입문 계기,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원활한 진로전환을 위해 필요한 도움,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학계열 학부를 졸업하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공학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직접 혹은 간접 체험을 통해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상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과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생소함,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학습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진로 탐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으로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을 통한 자기이해와 전공지식을 선행 학습하는 것이라 응답하였고,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통계 분석, 상담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등의 수행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이 상담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공학계열, 대학원생, 진로전환, 합의적 질적 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유진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부교수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222
Tel: 02-2220-2614 / E-mail: yoojinjang@hanyang.ac.kr

서 론

상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자 및 자격 응시자 수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이상민 외, 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의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담 전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다(김인규, 2018). 이러한 급격한 양적 증가 추세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김인규, 2009; 최해림, 김영혜, 2006).

국내 상담자 교육은 주로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손은정, 2003; 심홍섭, 이영희, 1998; 이한녕, 2005; Skovholt & Ronnestad, 1992; Skovholt & Starkey, 2008)를 기초로 하여 상담과 관련된 국내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김정택, 도상금, 1993;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상담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개념적 지식이나 단편적 기술 전달을 넘어선 성찰 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담자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김진숙, 2005; Schön, 1987) 등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 전공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박경애, 방기연, 2007; 이상현, 이규미, 2011; 조운진 외, 2010; 황채운 외, 2009)는 상담자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한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이 상담 전문성

함양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교육 정도 및 학습 욕구에 대한 고려와 상담 실습 훈련과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황채운 등(2009)은 상담전공 석사과정을 경험한 후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상담은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의 대학원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임을 지적하면서,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과정 동안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운진 등(2010) 역시 교육 수혜자인 상담 석사생들의 관점에서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입학 후 실제로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담 석사 재학생 및 졸업생 1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상담자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습 훈련과 연구 활동, 그리고 진로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높음을 논의하였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 교육 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며(Rodgers, 1980; Tyler, 1949), 이는 상담자 교육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상담 분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상담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상담의 학문적 특성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진로 결정이 중년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등(방기연, 2018; 신순옥 외, 2015), 상담 전공 대학생들의 연령과 교육적 배경 및 직업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Clawson et al., 2003)에 따라 이들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배경(인종, 출신 국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경험과 전문성 발달 및 진로개발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여 상담자 교육과 훈련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Busacca & Wester, 2006; Haskins et al., 2013). 국내에서 실시한 박경애와 방기연(2007), 이상현과 이규미(2011)의 연구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경험하는 등의 긍정적 교육 효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담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 반면, 교직 생활에 한계를 느끼거나,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함이 상담 석사과정의 입학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방법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특수한 결과로 현직교사라는 교육 수혜자의 특성이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상담 대학원생들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배경에 대한 고려는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학부 전공이나 과거의 직업적 배경이 상담학과 관련성이 적을수록 상담자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 관련 전공 학부 출신들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홀랜드 진로성격 이론(Holland, 1997)은 개인의 특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직업적 흥미와 전공분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어 상담학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전공분야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성격 이론에서 분류한 여섯 가지 유형은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로 각 유형들은 육각형을 이루면서 특정 위치에

배치되는데 육각형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유형 간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멀리 위치할수록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상담이나 교육과 같이 타인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형으로 이들은 주로 교사나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형과 가장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유형은 실재형과 탐구형으로 이들은 주로 기계와 도구를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활동을 선호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져 주로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김봉환 등, 2018; Sheu et al., 2010). 이러한 선호도 측면뿐 아니라 역량 측면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수학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공학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고, 낮을수록 상담이나 심리학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적 유능감과 공학 전공 지속가능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오재림, 1992; Mau, 2003).

공학 전공 학생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 미래 인력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김용훈, 2010), 과도한 전공 학습량과 전공 선택에 대한 낮은 확신도 등(김민선, 2008)으로 인해 타 전공 계열 학생들과 비교해 진로를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uad et al., 2016). 상담 분야에 있는 학부 공학 전공자들의 수는 알려진 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공학 전공자들이 타 학문 분야로 전공이나 진로를 전환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학과 공학은 학문적 특성, 요구되는 역량 및 흥미의 측면에서 대극적인 분야임을 고

려할 때, 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했던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은 전공전환 과정과 새로운 전공 분야에의 적응 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상담자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적응을 위한 조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일 것으로 추측된다.

진로전환이라는 개념은 일이나 직업, 전공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과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장계영, 김봉환, 2009). 또한 Goodman 등(2006)에 따르면 진로전환 사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상황 지각, 자기 지각, 지지체계, 대처전략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전환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전환 이전의 교육적, 직업적 배경과 같은 선행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로전환을 주제로 한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최재혁, 김명화, 2017; 최희주, 김영근, 2020; 최혜윤 외, 2019)은 다른 직업분야 혹은 전공영역에서 상담으로 진로를 전환한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조명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 선정이나 분석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학과 같은 관련성이 낮은 전공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Hill et al., 1997)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 중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진로를 전환하여 상담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입학 후 학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그리고 상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공학계열 출신으로서 가

지는 어려움과 강점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에 대한 조력과 상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향후 상담학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최재혁, 김명화, 2017; 최희주, 김영근, 2020)에서 활용한 인터뷰 질문 목록을 참고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둘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넷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자원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학부를 졸업한 후 상담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CQR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여자 수를 8명(Hill et al., 2005)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 기준을 충족시킨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부 전공
1	20대 중반	남	석사 2학기 재학 (상담심리)	기계공학
2	30대 초반	여	석사 수료 (교육상담)	컴퓨터공학
3	20대 중반	남	석사 1학기 재학 (상담심리)	의류공학
4	40대 초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기계공학
5	30대 후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전자공학
6	20대 후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심리)	기계공학
7	30대 초반	남	석사 수료 (교육상담)	컴퓨터공학
8	30대 후반	여	석사 3학기 재학 (상담심리)	컴퓨터공학
9	20대 후반	여	석사 3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전자공학

연구 참여자 중 6명은 여성, 3명은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걸쳐 있었다.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 4명은 석사 과정 1학기, 1명은 2학기, 2명은 3학기를 각각 마친 상태였고, 다른 2명은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다. 학부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공학이 2명, 의류공학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팀과 감수팀

본 연구의 연구팀은 상담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되었고, 감수자로는 CQR 분석 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공 박사 1인이 참여하였다. 연구팀은 인터뷰 질문지 작성과 인터뷰 실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담당하였고, 감수팀은 자료 분석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수팀은 분석 작업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팀은 감수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논의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후 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되었다. 감수자는 인터뷰 질문에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와 같은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반응이 초점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하였는데,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질문을 수정하였다. 인터뷰 진행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는 한 명의 연구자가 전담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상담 분야 입문 계기 혹은 동기’, ‘상담 훈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어려움 극복 방법’,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 유용한 선행 학습 혹은 경험’, ‘공학 전공자의 장점’, ‘공학 전공자로서의 기여점’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고, 연구팀에 이메일을 통해 참여 의사를 전달한 참여자들에게 연구설명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이메일로 송부, 회신토록 요청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짧게는 5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음성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각 녹음파일에 사례번호가 부여된 후, 결과 분석을 위해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자료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심층적 반응을 유도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며, 연구팀과 감수팀을 활용하여 연구에 개입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킨 팀 중심의 질적 분석방법이다(Hill et al, 1997). CQR을 활용한 자료분석은 크게 ‘영역 부호화’,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Hi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부호화(coding of domains) 단계에서는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영역의 초기목록(start list)을 생성한 후,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인터뷰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초기목록의 영역이 적절한지 검토하며 영역을 추출하였다. 이후 연구팀은 모여서 각자 추출한 영역을 비교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6개의 영역을 산출하였다.

둘째, 핵심개념 구성(developing core ideas) 단계에서 연구팀은 생성된 6개의 영역별로 모든 사례들을 정리한 후,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각 영역의 사례들을 읽고 핵심 개념을 요약하였다. 이후 연구팀은 각자 요약한 요약 반응을 비교하며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추론을 삼가고 가능한 원 자료에 근거하도록 합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건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된 핵심개념(core ideas)을 구성하였다.

연구팀 내에서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은 감수자에게 보내져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각 영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된 피드백 내용을 연구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팀은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셋째, 교차분석(cross-analysis) 단계에서는 사례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여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각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독립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Hill 등(2005)의 권유에 따라 도출범주가 모든 사례 혹은 1개를 제외한 경우인 8~9개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으로 5개 사례 이상의 경우는 ‘전형적(typical)’, 절반 미만의 사례로 2~4개 사례인 경우는 ‘변동적(variant)’ 범주, 1개 사례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문(rare)’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에서 산출한 영역, 핵심개념, 교차분석의 결과는 감수팀에 보내져 검토되었으며, 감수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팀에 의해 최종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 과

CQR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17개의 범주와 29개의 하위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6개의 영역은 ‘상담입문 계기 혹은 동기’, ‘초기 공부의 어려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할

부분’, ‘공학도로서의 강점’이며 영역별 범주 및 하위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 상담 분야에의 입문 계기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였으나 전공을 전환하여 상담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한 참여자 반응은 Table 2와 같이 크게 3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공학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됨

상담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부 전공인 공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공학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아나가는 학문이라는 점과 협동보다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학과가 저랑 좀 많이 안 맞는다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협동

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컴퓨터공학 자체는 약간 혼자서 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참여자 2)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적성에 안 맞아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취업과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이쪽 직장으로 계속 다니게 됐었죠. (참여자 4)

상담에 흥미를 느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이 지속되어 상담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학부 시절부터 자신이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심리학 관련 서적 읽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몇몇 참

Table 2
How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공학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됨	전형적(6)
상담에 흥미를 느낌	
원래부터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	전형적(5)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	변동적(3)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치유된 경험	전형적(5)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함	변동적(4)
지인으로부터 상담공부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들음	변동적(3)

여자들은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상담 분야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서 사람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고등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책은 꾸준히 읽고, 사람 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 갔을 때 심리학 수업도 일부러 신청해서 듣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5, 원래부터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

심리는 나를 위한 공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참여자 7,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

진로전환을 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내담자로서 상담을 직접 경험하거나 지인이 상담 받은 경험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게 된 것이 상담입문 동기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자신이 치유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상담의 긍정적 효과를 알게 되면서 상담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더 성장시켜 나아가고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자극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담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해보고 싶다는 동기와 함께 미래에 상담 관련 직업이 향후 유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를 먼저 시

작한 지인으로부터 상담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상담 분야로의 입문 동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 개인적으로 치유된 경험을 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건강한 가정을 다시 꾸리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배경이 어려웠지만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서 변할 수 있구나’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고요. (참여자 5,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치유된 경험)

상담이 이렇게 일대일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개선이 되고 하는 과정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담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함)

영역 2 : 초기 공부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상담 대학원 입학 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과 같이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

참여자들은 상담학은 공학과 학문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으며, 특히 요구되는 사고방식과 학습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적응하기에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공학과는 다르게 상담학은 상황별 혹은 사례별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의

Table 3
Difficulties Faced in The Early Stage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	
명확한 답이 없는 정보의 습득	전형적(5)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변동적(4)
숫자가 아닌 글로 된 지식을 이해하고 서술형으로 표현하기	변동적(4)
분석보다 이해에 초점	변동적(3)
생소함	
이질적인 학부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	변동적(4)
공학에 비해 상담 공부가 쉽게 느껴짐	변동적(2)
정보의 부족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변동적(4)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수강신청 시 혼란	변동적(2)

경우 사실상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상담학의 이론적 지식은 공학에 비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많아 이해하기에 어려우며, 특히 숫자로 표현된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 역시 숫자로 하던 공학적 방식과는 달리 상담학에서는 숫자가 아닌 글로 된 지식을 이해하고 서술형으로 표현하기를 요구받고 있어 많은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공학에서는 문제와 답을 분석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상담학에서는 사람, 특히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기 때문에 분석보다 이해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공부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제가 했던 전공은 답이 딱 있는 전공이라서, 중간 중간에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를 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뭐 이게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담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명확하지 않은 학문이라서 그런 점이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의구점이 많이 남았던 거 같아요. 여기 개념을 봐서는 이것도 맞는거다 저것도 맞는거다, 그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방식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명확한 답이 없는 정보의 습득)

어려운 점은 이제 심리학 이론처럼 두루뭇술한 추상적인 거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 정의 내리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구요. 그리고 그런 이론을 이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 대체 저것을 왜 하고 있나 라는 약간 의구심

같은 것도 가끔씩 들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 같은데. 그런 용어정의 같은 거에 대해서 답 답함을 많이 느껴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운 거 같구요. (참여자 4,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생소함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생소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변동적인 수준에서 이질적인 학부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담학에 대한 지식적 측면으로서 전공 용어에 대한 생소함에서부터 상담관련 학회와 자격증에 대한 실용적 배경지식에 이르기까지 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것들로 인해 위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의 동료나 선배 혹은 교수님들로부터 공학 전공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는 시선이나 피드백을 받기도 했으며 이것이 위축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에 비해 상담학이 상대적으로 학습할 양이 적거나, 학습 내용이 일상의 삶에 더 가까운 내용이거나, 순차적인 이해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생소하지만 공학에 비해서는 상담 공부가 쉽게 느껴진다는 응답도 변동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

일단은 제가 심리적인 위축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해서 온 친구들은 뭔가 조금 더 자신감 있었고, 수업을 대하는 태도나 상담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중략)... ‘내가 저만큼까지 가려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위축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한테 ‘그래도 비전공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비전공자니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더

이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일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듣기에는 비전공자를 약간 차별하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센터에서도 인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처음에 저를 안 뽑으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부전공이 달라서 뭔가 좀 잘 못 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2, 이질적인 학부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

내용 이해는 좀 힘들긴 한데, 공부의 양을 생각하면 제가 공대 다닐 때는 정말 많이 힘들게 맨날 리포트에다가 퀴즈에다가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이제 시달리다가 지금은 문과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공부라기 보단 약간 이제 마음속으로는 취미 생활 같은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말 수업을 위한 공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장점이에요. (참여자 4, 공학에 비해 상담 공부가 쉽게 느껴짐)

정보의 부족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배경정보가 부족하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의 참여자들은 전공 과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수강신청 시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취업이 어느 쪽으로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학회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냥 ‘상담심리학만 할거야.’ 이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들어와서야 정보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동기들 하는 것 보고 좀 따라가게 되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런 것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심리학 자격증 따려면 꼭 들어야 하는 과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과목을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참여자 3,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수강신청시 혼란)

영역 3 :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여자들은 앞서 기술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방식의 변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진로를 탐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4와 같이 3

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학습방식의 변화

참여자 중 대부분은 공학을 공부하면서 길들여진 ‘정답 찾기’ 식의 학습방식을 상담학에 맞추어 이해에 초점을 두는 학습방식으로 변화시켜가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력한 거는 ‘답은 없다’라는 것을 항상 되뇌었죠. 자꾸 답을 찾으려고 최고의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고들을 좀 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요. (참여자 1)

내담자를 이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맞아. 이게 정답이야’라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꼭 정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담현장에서도 잘 풀고 있는 거 같아요.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잘 이해

Table 4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학습방식의 변화	전형적(5)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심리학 관련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보충해 나감	변동적(4)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함	변동적(4)
열심히 공부함	변동적(4)
사례 및 실생활에 적용하여 이론을 이해하고자 노력	변동적(2)
적극적인 진로 탐색	
선배 및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구함	변동적(3)
상담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 적성을 확인	드문(1)

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7)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상담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후 공학에서는 배우지 못한 생소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습에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학부에서 상담 혹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다른 동료들에 비해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리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보충해나가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교수님 뿐 아니라 선배 및 동기들에게 지식 이해에 도움을 구함으로써 배운 지식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더불어 몇몇 참여자들은 상담사례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삶의 모습에 배운 지식을 적용해 나가면서 이론적으로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책을 진짜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된 책을 모조리 다 읽자는 마음으로 정말 다 빌려봤어요. 대학원 들어와서도 동기들은 다 심리학 전공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마다 이제 제가 스터디하자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같이 공부했었구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력을 10배 정도 한 거 같아요. (참여자 8, 심리학 관련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보충해 나감)

잘 모르겠는 거는 계속 동기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 이러 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참여자 2,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함)

적극적인 진로 탐색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졸업 이후의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다. 선배 혹은 상담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직접 구함으로써 원하는 진로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고 있었으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인턴 상담사로서 실습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적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진로나 자격증이나 협회관련 이런 이제 구조를 이해하거나 이런 거는 대학원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움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또 1학기 때는 이제 신입생이다 보니까 신입생 OT, 환영회 뭐 이런 것들 몇 번 경험하면서 그런데서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마다 도움도 받고.. (참여자 5, 선배 및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구함)

상담 실습을 시작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상담이 더 맞는구나.’ ‘내가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고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진로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참여자 2, 상담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 적성을 확인)

영역 4 : 초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움

참여자들은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상담 분야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 안내’ 받는 것과 ‘학업적 도움’을 입문 초기에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같이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상담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상담으로 진로를 전환한 참여자들은 대학원에서 수강해야하는 전공과목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입학 초기에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면 입문 과정이 보다 수월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특히 전공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선수강 과목과 필수과목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더불어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위 과정 이외에 실습 과정 등을 거쳐 공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할 요건에 대한 정보와 자격증 취득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발달심리, 이상심리 등 전공과목 별로 밑배우는 학문인지 그리고 자격증을 왜 따야 되고 자격증 따면 어디에 좋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고 그런걸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상담심리사 2급, 1급을 향해서 연수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

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뒤늦게 부딪치면서 알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뒤쳐지더라고요. 그런 안내가 좀 됐으면, 상담 쪽에서 나가는 진로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거를 선배나 교수님이나 조교를 통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8, 자격증 취득 및 진로 정보 제공)

학업적 도움

참여자들은 초기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업 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료나 선후배 간 학문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스터디 모임이 조직되어 활성화된다면 상담학이라는 학문 영역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또한 상담학은 낮은 학문이면서 동시에 공학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타인의 상담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Table 5
Assistance Needed for Smooth Transition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상담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전형적(5)
자격증 취득 및 진로 정보 제공	전형적(5)
학업적 도움	
스터디 모임 조직 및 활성화	변동적(3)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경험의 기회	변동적(2)

‘이런 공부법이 어딴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답이 없냐?’ 이런 거를 저는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기는 겁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7, 스터디 모임 조직 및 활성화)

아무래도 이제 책으로 보고 그냥 설명을 듣는 거는 많이 안 와 닿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능만하다면 영상을 녹화한 거라던가 진행 방식 같은 거를 좀 실제 사례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반응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게 그래서 좋은 반응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참여자 2,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경험의 기회)

영역 5 :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진로를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은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하위범주 없이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내담자로서 상담 경험 및 자기이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담자로서 상담경험 및 자기이해’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

Table 6
What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범주	빈도
내담자로서 상담 경험 및 자기이해	전형적(5)
전공지식 학습	변동적(4)
경제적 비용에 대한 대비	변동적(3)
사고방식 전환에 대한 개방적 태도	변동적(2)

어야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학문적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한번 받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상담을 할건데 그 전에 상담을 받아보면 ‘아, 이런 게 상담이구나!’ 좀 체득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상담을 진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친구들한테 100번 말해도 저에 대해 객관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상담을 받으면 좀 진짜로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거나, 혹은 내담자가 이렇게 하면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담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 그것만큼 배울 수 있고요. 완전히 확 와 닿으면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6)

전공지식 학습

참여자들은 상담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전공

관련 서적 등을 미리 읽어보면서 전공지식을 미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상담의 기초’ 이런 책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원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이걸 봤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통계도, 저는 학부에서 다행이도 통계를 공부하고 와서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통계를 다루지 않는 다른 전공에서 온다면 되게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참여자 2)

경제적 비용에 대한 대비

참여자들 중 몇몇은 상담 공부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변동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돈을 좀 마련하라고 하고 싶어요. 돈이 거의 제 생각엔 80~90% 이상인 거 같아요. 상담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수련들도 많이 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인 것 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동안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것 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도 대학원에 지금 돈 때문에 자퇴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참여자 4)

사고방식 전환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일부 참여자들은 성공적 진로전환을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학에서의 접근방식과 상담학에서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한 번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대는 답을 찾기 위한 거고, 상담학은 찾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는 거고... 공학에서 했던 공부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K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는 전부다 공학 석박 사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항상 옳아요. 자기 생각이 제일 정답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골수다. 자기밖에 생각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열린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7)

영역 6 : 공학도로서의 강점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경험이 현재 상담학을 새롭게 공부하고 나아가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해나감에 있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분석적 사고’ 능력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점과 ‘상담과 공학 융합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7과 같이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분석적 사고

공학에서는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강조되며, 따라서 참여자들은 학부시절 공학을 공부하는 과정

Table 7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분석적 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전형적(5)
통계 분석	전형적(5)
심리검사 결과 분석 및 이해	변동적(3)
공학적 배경을 상담분야에 적용	
상담 정보의 체계적 기록 및 분석	전형적(5)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변동적(2)
공학 및 제조 산업 분야 내담자 대상의 상담	변동적(2)

에서 분석적 사고역량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상담학 분야 중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통계 분석과 심리검사 결과 분석 및 이해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측면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담자 특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과생들한테 갖는 고정관념은 뭔가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의미를 많이 뒤서 ‘너무 감성적이다’ 그런 시각이 있긴 해요. 상담자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역전이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좀 객관화해서 보는 것도 훈련이 많이 되어야하는데 공대생은 그런 훈련이 필요 없이 약간 습성이니까 내담자가 하는 말을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하고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 이런거에 있어서요. 그리고 내담자 말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고 객관화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이미 훈련 되어 있는 것 같긴 해

요. (참여자 6,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답을 찾는 건 진짜 잘해요. 분석적 사고라고 표현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찾고 그거를 수량화하고 계산하는 거는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심리 통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프를 이해 못하고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수가 들어갔던 거는 거의 다 잘했던 거 같아요. 통계나 심리검사 같은... (참여자 7, 통계 분석)

공학적 배경을 상담분야에 적용

참여자들은 과거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공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상담분야에 접목시키거나 적용함으로써 상담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범주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몇몇의 참여자들은 공학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필요한 고차원적인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 공학 분야 전공학생이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학 분야를 접해보지 못한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비교적 내담자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상담도 일이기 때문에 잡무 같은 게 부수적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적 관리처럼 내담자들 왔을 때 기록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함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이 상담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좀 편리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참여자 8, 상담 정보의 체계적 기록 및 분석)

공학자들은 완전히 사고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을 내담자로 만나 상담할 때, 공감이나 이해를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6, 공학 및 제조 산업 분야 내담자 대상의 상담)

논 의

본 연구는 학부에서 공학계열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생 9명을 대상으로 진로전환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의 상담분야 입문 계기, 어려움과 대처전략, 필요로 하는 지원, 교육적 강점 및 자원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일대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CQR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 분야로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참여자들은 공학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전형적으로 언급하였다. 공학 분야와 자신의 특성 간의 불일치가 상담 분야로 이끈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아니나, 진로전환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Holland(1997)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직무 환경을 찾는다는 가정 하에 성격과 직무 환경 간의 일치도(congruence)를 강조하며, 낮은 일치도가 진로전환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부 시절에 이미 공학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거나 대학 졸업 후 공학 관련 분야에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이를 알게 된 경우로 나뉘었는데, 대부분 사물(예, 컴퓨터)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보다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일이 자신에게 더 흥미롭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간에 대한 관심, 소통의 욕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구가 상담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된 동기 중 하나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추연국 외, 2016; 최혜윤 외, 2019; Faber et al., 2005; Hill et al., 2013; Norcross & Farber, 2005)의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들의 진로전환은 주관적인 불만족감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공학 분야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시절부터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거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성찰하며 자신이 ‘사람’과 ‘자기이해’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 중 어떤 참여자는

직장에서 직업흥미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성격이 상담 분야에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재발견 혹은 재인식은 대부분 대학시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과 무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다가 상담 전공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16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혜윤 등(2019)의 연구에서도 상담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중 자신을 포함한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배적이었으며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참여자들도 절반에 가까웠다. 결국 다른 직업 분야에서 진로전환을 이끄는 결정요인으로 꼽히는 직업의 안정성이나 소득, 근무여건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수진, 임은미, 2012; Carless & Arnup, 2011)보다는 자신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아실현을 향한 내적인 동인이 상담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참여자들이 많은 대안적인 진로 중 상담이라는 특수한 조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상담 및 심리학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었다는 점이 전형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받거나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상담 분야로의 입문 동기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상담 분야를 선택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험(신순옥 외, 2015; 최재혁, 김명화, 2017; 최혜윤 외, 2019; 황채운 외, 2009)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1명의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상담자가 된다면 자신의 상담자와는 다르

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상담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점이다. 빈도의 측면에서 드문 경우이긴 했지만, 이 참여자의 이야기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상담 분야 입문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심리학 전공 학부생 중 상담자로서의 진로를 결정한 고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Hill 등(2012)의 연구에서도 비효과적인 상담자와의 상담 경험이 자신은 보다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어야겠다는 동기를 촉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분석된 또 다른 계기로는 참여자들이 상담자라는 직업을 미래에 매우 전망 있는 직업으로 인식했다는 점인데, 주목할 점은 이들이 진로전환을 위해 상담을 유망한 업종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관심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담을 유망한 분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진로를 전환하는 자들이 새롭게 선택하는 분야의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태도(Wise & Millward,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참여자들이 상담 분야로 진로전환을 한 이후 경험한 어려움은 공학과는 이질적인 상담학의 특성과 생소한 학문 영역에서 느끼는 정서, 정보 부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학이 공학과 비교해 정답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많으며 수치가 아닌 서술형의 글로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달랐다고 응답하면서 이러한 이질적인 학문적 특성이 특히 초기 적응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황채운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도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정답이 없다는 점과 상담개입에 있어서도 매뉴얼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 참여자들에게 상담 분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하는 공학과는 달리 감성적인 수준에서의 공감과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요한다는 점이 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도 변동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실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보고(Kirkpatrick et al., 2011)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절반에 가까운 참여자들은 처음 접하는 지식 체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하였는데, 1명의 참여자는 이러한 위축감이 ‘비전공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교육자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특이한 점은 심리적 위축감을 언급한 2명의 참여자는 오히려 생소한 학문 분야인 상담을 공부하면서 공학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공학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공부 내용이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흥미로우며, 공학은 순차적인 지식 구조가 명확한 데 반해 상담은 영역별 학습이 비교적 순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5명의 참여자들은 전공 과목 학습과 자격증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가 없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는데, 선행연구(박신영, 2017; 최혜윤 외, 2019; 황채운 외, 2009) 결과를 보면 이는 비단 공학 전공자들뿐 아니라 학부에서 유사 전공을 했던 학생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박신영(2017)의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대학원 진학 전후에 상담자 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0명의 상담심리 전공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황채운 등(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상담심리 분야라는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참여자들의 토로가 보고되었다. 상담분야로의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혜윤 등(2019)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담관련 학회와 상담관련 대학원 및 자격증이 지나치게 많아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해 본 연구는 이질적인 전공에서 상담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담학의 학문적 체계와 구성을 소개하고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가능한 진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서 기술한 어려움에 대해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였는데, 학문 특성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공학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복수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면서 전공 서적을 탐독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이론적 내용을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이 단일하고 객관적인 본질이나 진실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positivistic) 관점이 아니라 다양하고 주관적인 진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ic) 혹은 사회 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vistic)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점(Cottone, 2007)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호하거나 부족한

진로 정보에 대해서는 선배들이나 학교, 학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 실습 기회를 통해 체험적으로 진로 적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공학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전환을 한 이후 전공과목과 자격증 및 진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초기 적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동료나 선배 간 스터디 모임을 조직해 주거나, 교수와의 강의를 통해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관찰 기회가 주어지거나 상담 사례와 실제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보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원에서의 상담 교육이 보다 실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 역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선배나 동료와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 내에서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학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응답은 참여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아울러, 전공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는 것도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언급되었으며, 상담은 공학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변동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아울러, 몇몇 참여자들은 대학원 공부와 상담 수

련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동기와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이선미(2019)의 연구에서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전형적인 빈도로 분석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비 외에도 워크샵, 수업비전, 수련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박신영(201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제가 일반적인 빈도로 도출되어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대다수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탐색이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이 두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높은 비용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담 분야의 현실(이상민 외, 2018)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상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학 공부를 통해 분석적 사고를 훈련해 왔기 때문에 내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연구 수행을 위해 통계 분석을 공부할 때, 혹은 심리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강점을 갖는다는 반응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학적 전공 배경을 활용해 상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분석하고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표현하였으며, 공학 및 제조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내담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대학의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상담 교육자에게 이들의 학업적 강점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며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담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의 추가적인 유용성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점(Owen & Imel, 2016)을 감안하면, 공학이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이 상담 분야의 지식 진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본 연구는 공학이라는 이질적인 전공에서 상담 분야로 입문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전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전환의 계기, 새로운 학문분야로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움, 그들이 가진 교육적 잠재력과 자원 등에 대한 이해를 더함으로써 상담 교육자들이나 슈퍼바이저들이 공학계열 학부 전공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지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하며 순차적인 지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공학과는 달리 복수의 정답을 허용하고 공감과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며 비순차적인 지식 구조를 갖는 상담학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점과, 역으로 공학에서 요구되었던 역량이 상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공학이라는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가진 상담 전공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의 고유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험 연구의 측면에서 상담 분야에 입문하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공학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이외에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공학보다 심리학이나 상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 높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자신의 직접 체험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 체험을 통해 상담분야로의 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나, 진로전환에 따르는 적응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학에 대한 적성이 비교적 뚜렷했었으나 상담을 체험함으로써 진로전환을 결심한 대학원생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공 불만족으로 인한 진로전환자들과 상담 체험에서 비롯된 비교적 급작스러운 진로전환자들의 적응 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공학과 상담학이 매우 이질적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진로전환 경험이 이전의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도출된 주제의 내용을 보면 고유성과 보편성이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고유한 전환 경험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의 시사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석사과정 재학생 혹은 수료생으로 진로전환 과정을 고려할 때 입문(moving in) 단계(Goodman et al., 2006)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도출된 주제의 구조와 내용의 전이가능성(transferrability)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후속 연구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후 적응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사람들(예, 박사과정 학생, 숙련급 상담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진로전환 단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Hill et al., 2005)하였는데,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인터뷰에 응한 장소의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보다 안정성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선 (2008). 공과대학 학생들의 공학흥미와 사회적 인지적 변인들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Kim, M.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cognitive factors and technical interests among students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 (2018). *진로상담(2판)*. 서울: 학지사.
- [Kim, B. H., Kang, E. H., Kang, H. Y., Gong, Y. J., Kim, Y. B., Kim, H. S., Seon, H. Y., Sohn, E. R., Song, J. H., Yu, Y. S., Lee, J. K., Im, E. M., & Hwang, M. H. (2018). *Career Counseling* (2nd). Seoul: Hakjisa.]
- 김용훈 (2010). 이공계 기피현상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치 재구조화 정책 방안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7(2), 183-202.
- [Kim, Y. H. (2010). A study on the policy guideline on the re-structurization of social position for scientific technologis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voidance of engineering cours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7(2), 183-202.]
- 김인규 (2009). 학부 상담학과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2), 793-811.
- [Kim, I. K. (2009). A study of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plan of counseling department in undergraduat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2), 793-811.]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Kim, I. K. (2018).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counseling certificat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475-493.]
- 김정택, 도상금 (1993). 상담가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학원 석사과정 상담 교육의 현황과 전문상담가 양성 인턴쉽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13-29.
- [Kim, J. T., & Doh, S. K. (1993). A study on counselo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1), 13-29.]
- 김진숙 (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13-831.
- [Kim, J. S. (2005).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counselo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813-831.]
- 박경애, 방기연 (2007).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8(3), 1185-1204.
- [Park, K. A., & Bang, K. Y. (2007). School teacher's experiences of counselor education program at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3), 1185-1204.]
- 박신영 (2017).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단절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Park, S. Y. (2017). *A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barriers of novice counselors: From the career interrupted case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방기연 (2018). 기혼 남성이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한 경험. *교육치료연구*, 10(2), 257-277.
- [Bang, K. Y. (2018). Married men's experiences of majoring in counseling at cyber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10(2), 257-277.]
- 손은정 (2003). 반성적 사고와 전문가 교육. *학생생활연구*, 28, 31-54.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Sohn, E. J. (2003). Reflective thinking and professionalism.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8, 31-54.]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1), 1-27.
- [Shin, S. O., Park, S. Y., & Lee, S. H. (2015). Qualitative research on happensta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of coaches and counselors in career transi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ing Education*, 4(1), 1-27.]
- 심홍섭, 이영희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 [Shim, H. S., & Lee, Y. H. (1998).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al levels of korean counsel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28.]
- 오재림 (1992). 미국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과 변경의 유형에 관한 연구: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 37-54.
- [Oh, J. R. (1992). A study on the types of major selection and change by gender of American college students: For Stanford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Sociology Studies*, 2(1), 37-54.]
- 이상민, 김은하, 김지연, 선혜연 (2018).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63-474.
- [Lee, S. M., Kim, E. H., Kim, J. Y., & Seun, H. Y. (2018).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463-474.]
- 이상현, 이규미 (2011).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3), 287-306.
- [Lee, S. H., & Lee, K. M. (2011). School teacher's positive experiences of counseling education program: A qualitativ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3), 287-306.]
- 이선미 (2019).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Lee, S. M. (2019). *A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barriers of counseling majors 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이수진, 임은미 (2012).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의 내용과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질적 분석. 아

- 시아교육연구, 13(3), 171-202.
- [Lee, S. J., & Im, E. M. (2012). A qualitative analysis on major-transition process of colle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3), 171-202.]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Lee, S. Y., & Kim, C. D. (2002). An exploratory curriculum for the graduate studies in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2), 231-250.]
- 이한녕 (2005). 상담자 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Lee, H. Y.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maturity scale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장계영, 김봉환 (2009). 진로상담: 진로전환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1), 399-415.
- [Jang, K. Y., & Kim, B. W. (2020).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Transition Guide Questionnaire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1), 399-415.]
- 조윤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윤진 (2010). 상담 석사 과정에 대한 석사생들의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인간이해*, 31(2), 103-122.
- [Cho, Y. J., Yoo, S. K., Park, S. H., Yoon, M. J., & Chang, Y. J. (2010). A study on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their graduate program.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2), 103-122.]
- 최재혁, 김명화 (2017). 두 여성의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 경험이야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514-526.
- [Choi, J. H., & Kim, M. H. (2017). The story of two women's career transition as a counselo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6), 514-526.]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Choi, H. R., & Kim, Y. H. (2006). A study on the graduate curriculum for the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4), 713-729.]
- 최혜윤, 김은하, 홍숙선 (2019).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20(3), 141-164.
- [Choi, H. Y., Kim, E. H., & Hong, S. S. (2019).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process in a sample of people who plan on career transition to professional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3), 141-164.]
- 최희주, 김영근 (2020).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1(4), 79-105.
- [Choi, H. J., & Kim, Y. K.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career transition to counsel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4), 79-105.]
- 추연국, 민경화, 권현용 (2016). 남성상담자의 직업선택 동기와 상담자로서의 경험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20(2), 77-94.
- [Chu, Y. G., Min, K. H., & Kwon, H. Y. (2016). A study on motivation considered to choose a job as male counselors and their experienc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0(2), 77-94.]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현 (2009).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Hwang, C. W., Park, J. A., Yoo, S. K., & Kang, J. Y. (2009).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3), 1359-1382.]
- Busacca, L. A., & Wester, K. L. (2006). Career concerns of master's-level community and school counselor traine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2), 179-190.
- Carless, S. A., & Arnup, J. L. (201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terminants and outcomes of career chang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80-91.
- Clawson, T. W., Henderson, D., & Schweiger, W. (2003). *Counselor preparation: Programs, faculty, trends* (11th ed.). New York: Brunner/Routledge.
- Cottone, R. (2007). Paradigm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visited: Is social constructivism a paradigm?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3), 189-203.
- Farber, B. A., Manevich, I., Metzger, J., & Saypol, E. (2005). Choosing psychotherapy as a career: Why did we cross that roa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In Session*, 61(8), 1009-1031.
- Fouad, N. A., Singh, R., Cappaert, K., Chang, W., & Wan, M. (2016). Comparison of women engineers who persist in or depart from engineer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79-93.
- Goodman, J., Schlossberg, N. K., & Anderson, M. L. (2006).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practice with theory*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Haskins, N., Whitfield-Williams, M., Shillingford, M., Singh, A., Moxley, R., & Ofauni, C. (2013). The experiences of black master's counseling students: A phenomenological inquir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2(3), 162-178.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Lystrup, A., Kline, K., Gebru, N. M., Birchler, J., Palmer, G., Robinson, J., Um, M., Griffin, S., Lipsky, E., Knox, S., & Pinto-Coelho, K. (2013). Aspiring to become a therapist: Personal strengths and challenges, influences,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of future psychotherapist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26(3-4), 267-293.
- Hill, C. E., Satterwhite, D. B., Larrimore, M. L., Mann, A. R., Johnson, V. C., Simon, R. E., Simpson, A. C., & Knox, S. (2012). Attitudes about psychotherapy: A qualitative study of introductory psychology students who have never been in psychotherapy and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2(1), 13-24.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Kirkpatrick, A. T., Danielson, S., Warrington, R. O., Smith, R. N., Thole, K. A., Wepfer, W. J., &

- Perry, T. (2011). "Vision 2030-Creating the future of mechanical engineering education", *Proceedings In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 Mau, W. C. (2003). Factors that influence persistence in science and engineering career aspira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3), 234-243.
- Norcross, J. C., & Farber, B. A. (2005). Choosing psychotherapy as a career: Beyond "I want to help peo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8), 939-943.
- Owen, J., & Imel, Z. E. (201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Big 'er'Data": Scaling up psychotherapy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3), 247.
- Rodgers, T. S. (1980). *Materials development: In prospect.* ELT Documents special.
- Schö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rofess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Sheu, H., Lent, R. W., Brown, S. D., Miller, M. J., Hennessy, K. D., & Duffy, R. (2010). Testing the choice model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cross Holland themes: A meta-analytic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52-264.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Skovholt, T. M., & Starkey, M. (2008). Epistemology legs of the practitioner's stool: Research, practice, personal lif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foster presentation.*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se, A. J., & Millward, L. J. (2005). The experiences of voluntary career change in 30 somethings and implications for guidanc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0*(5), 400-417.
- 원고 접수일 : 2020. 10. 21.
수정원고 접수일 : 2020. 12. 10.
게재 결정일 : 2020. 12. 11.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Programs Who Had An Undergraduate Degree in Engineering

Min Kyung Jo¹ · Yoojin Jang²

¹Ph. D.,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²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who had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engineering. Specifically, what made them enter the counseling field, what difficulties they faced in the course of counselor training, how they coped with those difficulties, what would help them make a smoother transition, and what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could contribute to their professional growth were identified. Nine graduate students, who had majored in engineering at undergraduate and were pursuing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participants stated, counseling fitted better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than engineering and a positive impression was formed on counseling throug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so they decided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In the early days of a new career, they had various difficulties due to different academic characteristics, unfamiliarity with the area, and lack of information about subject areas and potential career options. Nevertheless, they tried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by changing their learning style and actively working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explore career paths. Participants responded that gaining self-understanding by receiving counseling as clients and acquiring the basic knowledge of counseling in advance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counseling field. Also, they believed that prior experiences as an engineering major could serve as a basis to perform well in the areas of analytical and logical understanding of clients, statistical analysis, and systematic recording and analysis of counseling in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Career Transiti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ppendix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Gender	Education (Major)	Undergraduate Major
1	Mid-20s	Male	2nd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2	Early-30s	Female	coursework completed (Counseling Education)	Computer engineering
3	Mid-20s	Male	1st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Textiles & clothing engineering
4	Early-4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5	Late-3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Electronic engineering
6	Late-2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7	Early-30s	Male	coursework completed (Counseling Education)	Computer engineering
8	Late-30s	Female	3rd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Computer engineering
9	Late-20s	Female	3rd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Electronic engineering

Table 2
How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realize engineering was not a good fit	Typical (6)
To get interested in counseling	
Prior interest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Typical (5)
Interest in people and oneself	Variant (3)
To form a positive impression on counseling	
Healing experiences through counseling and psychology	Typical (5)
Seeing the value of counseling	Variant (4)
Hearing positive comments about studying counseling from a friend or an acquaintance	Variant (3)

Table 3
Difficulties Faced in The Early Stage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Academic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engineering	
Acquisition of information without clear answers	Typical (5)
Abstract and vague concepts	Variant (4)
Understanding by narratives, not by numbers and expressing in narrative form	Variant (4)
Focus on understanding rather than analysis	Variant (3)
Unfamiliarity	
Feeling small due to a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Variant (4)
Feeling easier about studying counseling than engineering	Variant (2)
Lack of information	
Lack of guidelines for career preparation process	Variant (4)
Confusion in registering for courses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subject areas	Variant (2)

Table 4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change one's learning style	Typical (5)
To actively work to acquire knowledge	
Building background knowledge through books on psychology	Variant (4)
Seeking help from people	Variant (4)
Working hard	Variant (4)
Trying to understand theories by applying them to cases and real-world situations	Variant (2)
To actively explore one's career paths	
Seeking career information from seniors, related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Variant (3)
Identifying one's career aptitudes through counseling practicum	Rare (1)

Table 5
Assistance Needed for Smooth Transition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provide orientation to the field of counseling	
Providing a systematic guide to academics	Typical (5)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ertificates and career options	Typical (5)
To provide academic support	
Organizing and activating a study group	Variant (3)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case examples	Variant (2)

Table 6
What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Categories	Frequency
Gaining self-understanding by receiving counseling as a client	Typical (5)
Acquiring the basic knowledge of counseling in advance	Variant (4)
Preparing for financial needs	Variant (3)
Being open to a new way of thinking	Variant (2)

Table 7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Analytic thinking	
Analytical and logical understanding of a client	Typical (5)
Statistical analysis	Typical (5)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test results	Variant (3)
Applying engineering knowledge and skills to counseling	
Systematic recording and analysis of counseling information	Typical (5)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analysis and diagnostic programs	Variant (2)
Counseling with clients who study or work in the engineering field	Variant (2)